

## 사상의학의 철학적 배경으로서의 오행론 검토 (한동석<sup>1)</sup>의 견해를 중심으로)

송기울\*

1) 사상의학의 철학적 배경으로서 '음양(陰陽)'론은 누구나 타당하게 쉽게 긍정되고 검토된다. 그러나 오행은 어떠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학문하는 이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연유로 오행은 사상연구에 있어서 그 용도가 폐기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작업은 사상의학의 철학적 배경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한동석 씨가 제기한 「오행개념의 질량변화(동무의 오행관)」을 살펴보자.<sup>2)</sup>

내경에서는 사물의 본질을 표준으로 하고 오행의 개념을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논술방법이나 요지는 관념적 내용이나 방법을 벗어날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가령 木을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요 木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양적 현상이란 것은 물질의 변화의 완결일 뿐이고 변화의 본질적 요소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화를 연구하는 데는 오행개념의 본질로써 기본 법칙을 삼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오행의 본질은 인간의 시각이나 감각으로써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것을 연구하기 위하여서

는 관념적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이와 같은 관념론적 방법을 현실적인 사물과 부합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행이 변화의 법칙인 진리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처음으로 오행법칙을 양적인 면에서 관찰하고 따라서 이것을 인체의 장부에 배치하는 것이 동무 이제마였던 것이다. …중략…

동무는 내경에 논한 바의 肝木·心火·脾土·肺金·腎水를 肝金·心土·脾火·肺木·腎水라고 바꿔 놓았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중략… 첫째로 사물의 본질적인 유동은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현상적인 형상에서 본질적인 개념을 파악하기 용이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중략… 둘째로는, 오행법칙의 목적을 밝히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木은 어떠한 목적때문에 發하며, 火는 어떠한 목적 때문에 散하는가, 하는 것과 같은 우주의 목적을 밝히려는 것이다. 세재, 인간의 본질적 특징을 밝힘으로써 우주의 현실적 신비를 개발(開發)하려는 것이다.

윗글의 한동석씨의 견해를 요약하며, 「질적인 측면의 오행과 양적인 측면의 오행이 있을 수 있는데, 양적인 측면을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는 것은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1. 한동석(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의 저자

2. 한동석(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중판 1990년 12월 행림출판 75쪽에서 84쪽

로 사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본질적인 측면은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관념적인 것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물과 부합시켜내기 어렵다. 그러므로 현실에 부합되며 현실 관찰로부터 오행의 법칙이라는 '진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동무 이제마가 해놓은 것이다。」 그러한 결과로 동무는 肝金·心土·脾火·肺木·腎水으로 오장의 오행배속을 바꾸어 놓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肝金·心土·脾火·肺木·腎水'를 외쳤을까? 한동석 씨가 지은 『우주변화의 원리』의 편제상 '第二章인 五行과 運'에서 오행에는 '질과 양'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무 이제마의 견해를 불러놓은 것일까? 어쨌거나 여기에 의문이 가는 점은 많이 있다. 하지만, 많은 것은 접어 두고 동무의 장부에 대한 설명방식을 좀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양(量)'에 관한 것인지, '질(質)'에 관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무의 장부론에 들어가기 전에 '양과 질'에 대한 개념을 좀 명확히 하고 넘어가자.

3) 여기에서 다루려고 하는 '양과 질'은 서양철학<sup>3)</sup>에서 세계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물질(物質)의 존재방식의 개념이다.

그것을 살펴보기 앞서 양과 질의 사전<sup>4)</sup>적인 개념을 살펴보자.

量: ① 양량. 분량. 전(轉)하여 널리 다소·장단·경중 등의 수 ② 되량 분량을 되는 용기

質: ① 모양질 물건의 형체 ② 바탕질 물건을 이룬 재료, 또는 그 품질 전(轉)하여 기초·근본의 뜻으로 쓰임

맑스주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단순히 물질적 세계를 승인할 뿐만 아니라, 물질·자연이 영구의 끊임

없다는 따라서 합법칙적인 변화와 발전의 상태에 있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다. …(중략)… “세계는 운동하고 있는 물질이다”라는 레닌의 말은 자연의 본질을 정확히 그리고 심원하게 표현하고 있다.

…(중략)…

질은 제성질을 통하여 나타난다. 질 및 성질이라는 개념은 종종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그것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성질은 외적으로 표현된 질이고, 일정한 대상의 다른 대상에 대한 관계의 가운데에서 보여진 질이다. …… 여러 사람의 인간적 질에 관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그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비로소 판단할 수 있다. …… 주어진 대상의 범위 내에서 변화할 수 있는 제성질과는 달리, 질은 항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상의 상대적인 불변성·항구성을 표현하고 있다. …… 총괄하면, 질은 대상 자체에 떨어지기 어렵게 결부된 규정성으로서, 대상에 상대적인 불변성을 부여하고 이것을 다른 제 대상으로부터 구별하는 모든 본질적인 특징의 총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대상의 질은 양적인 측면과의 결부의 밖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양이라는 개념도 또한 임의의 대상·현상 또는 과정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를 반영하고 있는 보편적인 범주이다. 양도 또 대상의 규정성으로 나타나지만, 질과는 달리 그것은 대상을 그 제성질이 발전하는 정도의 측면으로, 즉 크기·용적·수량·운동속도·체색의 강도 등의 측면으로 특징지은다.

…(중략)…

헤겔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양적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것은 최초의 것이상의 의미를 조금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다른 것이 숨어 있는 것이어서, 일견 아무것도 아니게 볼 수 있는 양의 변화는 질적인 것을 파악하는 소위 교지(狡智)이다.”

… 양은 질과 같이 대상의 한계이지만, 그 한계의 성격·본성은 다르다. 대상의 질적 한계의 '파기'는 대상 그 자체의 변화를 동반한다. 대상의 양적 한계

3. 녹두편집부 編 『세계철학사 Ⅱ-변증법적 유물론』 도서출판 녹두 1985년 147-176쪽

4. 이상은 감수 『漢韓大字典』 민중서림 1987 제21판

는 그것보다도 한층 더 탄력성이 있는 것이고, 여러 측면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물질'과 '기(氣)'에 관한 무수한 논의가 개입될 수 있다. 하지만, "세계는 운동하는 물질이다."라는 전제와 "우주는 이합집산하고 있는 기(氣)이다."라는 전제는 둘다 인체의 생명현상을 포함한 자연과 인간사회를 동일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다만, 여기서는 한동석 씨가 제기한 질로서의 오행과 양으로써의 오행에 대한 것을 검토해보고자 앞의 양과 질의 개념을 빌려보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동양철학에서 '질'과 '양'의 개념은 어떠한 것인지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면서 말이다. 앞의 질과 양은 물질의 존재양식이라는 점에서 기의 질과 양이라는 것으로 대입시켰을 대의 문제점은 무책임하게 방치할 수 밖에 없다.)

4) 우리는 흔히 '오행(오행)'을 어떤 것의 속성으로 생각한다. 만약 '간(肝)을 木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간은 나무가 가지는 속성을 지닌 장부다."라고 이해한다. 문장을 그대로 등치시키면 '木=나무의 속성'이 된다. 여기서 잠시 오행에 대한 인문학자의 서술을 살펴보자.

오행은 우리가 늘상 쓰는 요일에도 반영되어 있듯이 수화목금토를 가리킨다. 물, 불, 나무, 흙, 쇠의 다섯이 그것. 오행론은 일상적으로 누구나 친하게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쓰고 있는 사물을 통해 우주의 역동적인 모습을 읽으려 한 시도. 행(行)이란 말은 사물이나 사태의 '국면', 혹은 '양태'를 나타내는 말. 그것은 사물의 원질을 찾는 본원적 사유와는 다른 발상. 서양과학은 사물의 바탕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근본적인 요소이냐에 매달렸지만, 오행론은

음양론과 마찬가지로 사태의 동적 국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5)</sup>

어쩌면 (정말 무책임한 말이지만) 조선시대 철학의 흐름 즉, 氣를 창조했던 서경덕-김시습,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주장했던 이이,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을 주장했던 이황, 기일원론(氣一元論)을 펼친 최한기 등은 동무의 사상의학의 철학적 토대가 된다해도 과언이 아닐듯하다. 이러한 논의의 단초라고 볼 수 있는 주시(朱熹)를 연구한 야마다 케이지의 기(氣)와 질(質)에 관한 이야기를 불러와보자.<sup>6)</sup> 만물의 생성에 대해서 주시는 이렇게 논하고 있다.

'음양은 기이며, 오행은 바탕(質)을 낳는다. 하늘과 땅이 사물을 낳을 경우 오행만이 사물에 선행한다. (陰陽氣地, 生此五行之質, 天地生物 五行獨先.)'

... (중략) ...

사실 주시는 질을 "볼 수 있는 유형의 존재"와 "볼 수 있는 존재"라는 좁고 넓은 두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 음양의 기 내지 오행의 기에 대한 오행의 질이라는 표현에 있어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존재"로 확장하였다. ... 음양의 생성작용의 결과로서 생기는 것은 모두 오행이며 질이다. 예를 들어 기상현상을 보기로 하자. 그것은 모두 음양의 기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현상은 오행으로서 인식된다. 번개와 우리는 불(火)이며, 비와 이슬은 물(水)이다. 또 거꾸로 오행의 질로서의 사물의 생성작용은 모두 음양의 기로서(속성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오행의 기이기도 하다) 이루어진다.

이쯤 되면 뭔가 헛갈리는게 있다. 한동석 씨는 결국 질(質)의 질과 양을 따지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한동석 씨의 혐의는 풀릴 수

5. 한형조 「동양적 패러다임의 새로운 지평-음양오행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경성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역음 『현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인문학』 도서출판 백의 1994년 336쪽

6. 김석근 옮김 야마다 케이지 지음 『朱子の自然學』 통나무 1991년

있으며, 동무는 적어도 동양의학사에서 인체의 생명현상을 탐구하는 방식을 커다랗게 바꾸어 놓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탁월한 그의 견해가 깃뻛히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적어도 이 논문은 그것을 증명할지 모른다.)

또한, 동양철학 및 동양과학(우주론을 포함하는)에서 기를 설명하는 오행의 개념이 사상의학에서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조명해볼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도 있다.

5) 몇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① 동무의 사상의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오행론은 폐기해야 하는가? 다시말해 사상의학에서 오행론은 전혀 무의미한 것인가?

② 한동석 씨의 동무의 오행관을 설명한 「오행의 질량변화」는 동무가 오행을 바라봄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방향을 달리했다는 점은 최소한 긍정할 수 있다. 좀더 심화시킨다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 하는 것이며, 어디까지 긍정할 수 있나?

③ 동무의 인체생명현상 연구는 '질' 적인 부분이었나? '양' 적인 부분이었나?

④ 동무는 인체를 바라봄에 있어서 오행은 모르고 음양만 알았던 것일까? 아니면 다 알았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행을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던 것일까?

⑤ 사상의학의 철학적 배경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매한 질문이 대부분이다. 몇가지의 정황과 공부의 좁은 폭을 가지고 이 물음의 답을 찾아가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6) 동무는 오행론을 과연 버린 것일까라는 질문의 답을 먼저 추적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의 물증으로 삼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다.

“『영추(靈樞)』<sup>7)</sup>서 중에는 '태소음양오행인론(太少陰陽五行人論)'이 있어 대략 그의 외형은 터득하였으나 아직 장부(臟腑)의 이치는 터득하지 못하였다. 대개 태소음양인은 일찌기 옛날의 경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직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sup>8)</sup> 이에 의하면 『영추』서 중에 있는 사상오행인론은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었던 것인데 은연중 이제마 자신에 의하여 체계적인 학문으로 정립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정리과정에 있어서 오행인론은 이를 배제해버리고 오직 太少陰陽 곧 사상인론(四象人論)만으로 이를 굳혔다는 사실이다. 漢代 이후 宋代에 이르기까지 전통적 유가(儒家)는 역리(易理)를 오로지 음양오행설이라는 복합원리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제마의 사상설은 그 중에서 오행설을 배제함으로써 전통적 유가의 사유세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음양오행이라는 복합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오로지 대대원리(對待原理)로서의 음양론적 세계관으로 정립한 이제마의 사상철학은 ... (이하 생략)<sup>9)</sup>

이 후의 답은 뻔하다. 사상의학에서 오행론은 폐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대안은 기의 운동형태이자 성질인 '승강부침(升降浮沈)'까지만 인정하겠다는 것이 된다. 다시말해, 기의 승강부침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체의 오행적 특성 - 오행의 질 - 은 없는 것이 된다. 동무는 정말 이것을 바란 것일까? 일단 기의 오행적 특성을 제쳐두고라도 사상의학이 운용될 수 있음은 인정하자. 임상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동무 역시 '肝心脾肺腎'이라는 오장을 이미 수용하고 있다. 다만, 심(心)의 생리·병리적 변화가 사상분류나 약의 운용과 관련이 없을 따름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심(心)이 실제하지 않는

7. 동양의학의 고전인 '황제내경'은 『소문(素問)』, 『영추(靈樞)』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의 하나

8. 이제마 원저 『東醫壽世保元』의 譯註本人 『四象醫學原論』(洪淳用 李乙浩 公譯. 서울 : 행림출판사. 1981 : 144.)

9. 이을호 「사상의학의 철학적 배경」 1995년 10월 19일 현곡학회 제27차 월례연구모임 발표논문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때문에 오행론 폐기론자들은 바로 이 심(心)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필요하게 된다.

어쨌든 이제마는 심(心)을 유형한 五臟心으로 간주(看做)하면서도 중앙의 태극이라고하는 총괄자로 이해하였음은 형체적인 심장이 지니고 있는 전체를 총괄하는 심장의 기능을 더욱 중시한 것 같다.<sup>10)</sup>

이것은 그들이 굳이 주 시의 성리학에서 말하는 리(理)의 개념과 다른 의미<sup>11)</sup>의 심이라고는 하지만, 그것과의 연관성을 지을 수 없다. 곧, 조선시대의 철학 논쟁인 리-기 논쟁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이제마가 어디서 누구한테 배움을 찾았는가가 밝혀지지 않음으로 인해 실증적인 자료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나아가 사상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원적 구조론이며 오행은 오원적 구조론이므로 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완전히 선을 그어버렸다. 같은 동양철학 적어도 한의학 안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오행론이 비과학적이라서? 아니면 오행론이 하기 어렵고 번잡해서 뜬 구름잡기 식이라서? 동무는 정말 어설프게 접근을 시도했던 음양과 오행론의 완전한 분리를 선언해버린 것일까?

뒤에서 답하기로 하자. 그보다 더 동무가 장부(臟腑)를 설명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가 인체에 접근하고 있는 태도를 먼저 살펴보았으면 한다.

폐 부위는 이마 밑 등 위에 있고, 위와 부위는 턱 밑 가슴 위에 있으므로 등 위와 가슴 위 이상을 상초라 이른다. 脾 부위는 척추골에 있고, 胃 부위는 흉격에 있으므로 척추골과 흉격 사이를 중상초라 이

른다. 간 부위는 허리에 있고, 소장 부위는 배꼽에 있으므로 허리와 배꼽 사이를 중하초라 이른다. 신 부위는 요추골 밑에 있고 대장 부위는 배꼽 밑에 있으므로 요추골 밑과 배꼽 밑 이하를 하초라 이른다.<sup>12)</sup>

태양인의 체형은 본래 분간하기 어렵지 않으나 그 숫자가 적어서 분별하기 어렵다. 그 신체의 상태는 목덜미가 두드러지게 성장하고, 성질은 남과 잘 소통하며 또 과단성이 있다.<sup>13)</sup>

사상을 판별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 동무는 실제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 쉽게 추측이 가능하며, 위와 같은 글들은 동무의 그런 자세를 반영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의 변화 조차도 위치를 정함으로써 -기의 변화와 장소인 상초 중상초 중하초 하초의 설정- 그 변화를 수량(量)화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음양의 기가 변화하여 오행의 질을 낳게 되는데, 옛날사람들은 그 상(象)을 취해 수(數)-하도(河圖)나 낙서(落書), 십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 등-화하여 기의 변화를 예측하고 인식하는 과정을 삼은 반면, 동무는 음양의 기가 변화하여 '승강부침(升降浮沈)' 현상을 낳음을 보고 그 상(象)과 수(數)를 다시 인체로 돌아가서 취해버린 것이다. 이쯤 되면, 오행론을 거론한다는 것은 '떼 쓰는 것' 밖에는 안되게 생겼다.

7) 여기서 다시 한동석 씨의 오행론 논의로 돌아가보자.

상수학(象數學)의 원리인 오행의 개념은 木火土金水의 본질인 기운을 주체로 하고 설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개념들은 관념적 형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10. 앞과 같은 논문

11. 앞과 같은 논문

12. 7번과 같은 책 79쪽

13. 앞과 같은 책 135쪽

즉 이것이 세인의 의혹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관념적 관찰을 천시하는 경향을 조장하기까지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즉 오행의 본질적 개념을 현상적 개념으로 바꿔놓음으로써 즉 오행운동의 이면을 중심으로 하였던 것을 표리중심으로 관찰함으로써 사물의 형상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동무 앞에서 한동석 씨 등이 하는 오행론의 위기감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자신이 지적했던 관념 가운데로 뛰어들고 만다.

태음인이 간대 폐소하다는 말은, 즉 축인묘(丑寅卯) 중 묘의 기능이 큰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을 질적인 면에서 보면 木(肝)大 金(肺)小하다는 말이지만, 양적인 면에서 보면 金大 木小하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오행 자체가 질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굳이 그 질을 다시 질과 양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 뭔가 오류가 반복되는 듯하다. 또한 인체나 자연의 관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수(數)인 십이지와 하도의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있다.

8) 중간에 던졌던 우매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모두 다 하진 못한 듯하다. 다만, 오행론을 검토하면서 몇가지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한동석 씨가 인정하는 데로 사상의학은 기존의 학문연구 방법과는 다른 각도에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보다 실증적이고 수량화된, 다시 말해 객관화된 의학의 틀이 요구되어지고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세히 검토해보지 못했으나, 사상의학의 철학적 토대가 조선사 600년을 관통하고 있는 성리학적 토대와 조선 후기 실학파들의 학문 경향과도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점이다.

• 기존의 관찰 방법

자연관찰(음양의 기 관찰)→오행 등의 상(象) 정립  
→수(數)를 통한 변화예측

• 이제마의 관찰

자연관찰(음양의 기 관찰)→인체에서의 상(象) 정립  
→생리·병리를 통한 변화예측

상관천시(上觀天時) 하관지리(下觀地理) 중관인사(中觀人事)라는 세 가지의 자연 및 사회과학적 틀이 전승되어온 것이 아니라, 십간 십이지 등의 상수학(象數學) 만이 전승되어 관찰은 도외시키고 도표만 바라보던 학문적 풍토에서 이 얼마나 진일 보한 자세인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이 너무 감정에 치우치는 한이 있더라도 감탄은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또 하나, 한동석씨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면, 사상의학을 통해 오행의 실증적 연구 토대를 마련할 방법도 있으리라 본다. 한동석 씨가 몇가지 오류를 범했다고 할 지라도 그가 해놓은 동무의 오행론에 대한 해석을 전부 부정할 수는 없다. 오류는 단지 용어상의 문제나 연구방법, 그리고 논거를 든 것이 동무가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었다는 점일 뿐이다.

9) 여러가지 논지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았다면 이렇게 추측과 개인적인 감상이 난무하는 글이 되지 않았을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동무 이제마를 한동석 씨를 통해 들여다 봄으로써 귀한 몇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를 둔다.

동무 이제마는 아무리 봐도 독창적이고 훌륭한 견해를 제출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그를 연구함에 있어서 아직 조선 철학사적 흐름과 연관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 그리고, 동무가 의학과 생명을 대했던 태도가 학풍으로 번지지 못하고, 다만 그의 견해를 외우기에만 급급한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 없다. 앞으로 이제마에 대한 위상화는 하지 말았으면 한다. 또한 선배에게 죄송한 말이지만, 중요 자료로 삼으려했던 이을호 교수님이 현국학회에 발표한 논문의 경우, '사상의학의 철학적

배경'이란 제목이 잘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사상의학 속의 철학'이라는 제목이 어울리지 않았을까 생각된다.